

재외동포의



December 2017



한국 역사 전체가 아로새겨져 있는 '서울 한양도성'

현존하는 전 세계 도성 중 가장 오랫동안 도성 기능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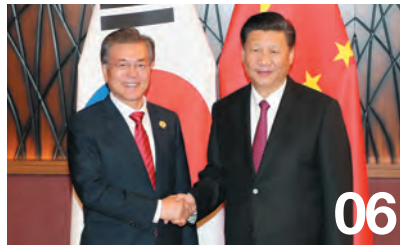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양도성(좌). 서울 종로구 삼청동 북악산 한양도성 숙정문.

서울 한양도성(사적 제10호)은 조선왕조 도읍지인 한성부의 경계를 표시하고 그 권위를 드러내며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축조된 성이다. 태조 5년(1396), 백악(북악산)·낙타(낙산)·목면(남산)·인왕의 내사산(內四山) 능선을 따라 축조한 이후 여러 차례 개축했다. 평균 높이 약 5~8m, 전체 길이 약 18.6km에 이르는 한양도성은 현존하는 전 세계의 도성 중 가장 오랫동안(1396~1910, 514년) 도성 기능을 수행했다. 한양도성에는 4대문과 4소문이 있다. 4대문은 흥인지문·돈의문·송례문·숙정문이고 4소문은 혜화문·소의문·광희문·창의문이다. 이 중 돈의문과 소의문은 멸실됐다. 또한, 도성 밖으로 물길을 잇기 위해 흥인지문 주변에 오간수문과 이간수문을 뒀다.

한양도성에는 한국 역사 전체가 아로새겨져 있다. 삼국시대 이래 우리 민족이 발전시켜 온 축성기법과 성곽구조를 계승했으며, 조선시대 성벽 축조 기술의 변천, 발전 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처음 축조 당시의 모습은 물론이고 후에 보수하고 개축한 모습까지 간직하고 있어 성벽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역사의 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특별한 문화유산이다. 성을 쌓을 때는 일부 성돌에 공사에 관한 기록을 남겼는데, 태조·세종 때에는 구간명·담당 군현명 등을 새겼고 숙종 이후에는 감독관·책임기술자·날짜 등을 명기하여 책임 소재를 밝혔다. 한양도성은 근대화 과정에서 옛 모습을 상당 부분 잃어버렸다. 일제는 1925년 남산 조선신궁과 흥인지문 옆 경성운동장을 지을 때도 주변 성벽을 헐어버리고 성돌을 석재로 썼다. 한양도성의 중건은 1968년 1·21 사태 직후 숙정문 주변에서 시작됐고 1974년부터 전 구간으로 확장됐다. 2014년 현재 전체 구간의 70%, 총 12.8km(2014년 기준) 구간이 남아있거나 중건됐다. 숙정문·광희문·혜화문을 중건했지만, 광희문과 혜화문은 부득이하게 원래 자리가 아닌 곳에 세워지게 됐다. [\[참\]](#)



CONTENTS

2017. 12

- 02 한국의 얼** 한국 역사 전체가 아로새겨져 있는 '서울 한양도성' 현존하는 전 세계 도성 중 가장 오랫동안 도성 기능 수행
- 04 특집** 24개국 150명 참가 '2017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성료 서울·평창서 네트워크 다지고 평창올림픽 성공 기원
- 06 화제** 韓中정상, 사드 마침표 찍고 관계복원 공식화... "새 출발" 다짐 모든 분야 교류협력 정상제도 회복 합의... 文대통령 12월 訪中 성사
- 08 기획** 수교 25주년 한·중 관계... '사드' 수습 단계로 기대감 큰 북경 한인사회 다문화가정 위한 '다누리센터' 운영해 우수한인회로 선정
- 10 글로벌 코리안** 할리우드 배우, 성우 등 6가지 직업 가진 '팔방미인' 재미동포 에스더 채 과학·의료 분야 세계최대 규모 출판사 이끄는 지영석 회장 '13억 인도 시장 교두보' 컨설팅 업체 '까마인디아' 노영진 대표
- 12 동포소식** 해외 유학생 줄어든다... 작년 26만 명, 2년 전보다 6% 줄어 외
- 15 동포 캘린더** 제1회 유럽 청소년 꿈 발표 제전, 헤이그 이준 열사 기념관서 개최 외
- 16 유공동포** 한국-인도 다리가 된 '반공포로' 출신 한인1세대 현동화 씨 "양국 민간교류 앞장선 공로로 훈장 수여"
- 17 주목! 차세대** 평창을 빛낼 스타, 재미동포 2세 '스노보드 천재' 클로이 김 타임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테에이지' 3년 연속 선정
- 18 지구촌 통신원** 프랑스 파리에 한국전쟁 참전 의의 되새기는 행사 잇따라 한·불 친선콘서트·'鬪鬪의 능선 전투' 추모행사·미술 전시회 등 열려
- 19 한민족 공감** 평창 이색 스토리... 입양아 출신 언니는 한국, 동생은 미국 대표로 미국 언론, 아이스하키 선수 마리아-한나 브랜트 자매 스토리 주목
- 20 동포문학** 별자리를 따라간 이중섭 강원희 _ 미국 _ 2017 동포문학상 시부문 대상
- 22 우리말 배워봅시다**
- 23 OKF 뉴스** 재단장학생 봉사단 안산 고려인마을서 '사랑의 김장 나눔' 외
- 24 고향의 맛·멋** 영양과 식감이 그만인 청정 산나물 '정선 곤드레나물밥' 새롭게 건강식으로 탈바꿈한 구황식물... 은은한 향기가 일품
- 26 재단공지**



표지 이야기

'2017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 참가한 24개국에서 온 150여 명의 한인 차세대 리더들은 '스무 살의 열정으로 세상을 잇다'는 슬로건 아래 서울과 평창을 오가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모국과의 유대강화 활동에 참여했다.



발행인 : 한우성 등록번호 : 문화-라 08249
 발행처 : 재외동포재단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전화 3415-0100 팩스 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 재외동포재단 홍보조사부 pro@okf.or.kr
 제작 : 연합뉴스 인쇄 :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 세계 74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웹진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www.korean.net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월 발간되는 '재외동포의 창' 웹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4개국 150명 참가 ‘2017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성료

서울 · 평창서 네트워크 다지고 평창올림픽 성공 기원

전 세계 한인 차세대가 모국을 방문해 뿌리를 체험하고, 서로 네트워킹하는 ‘2017 세계한인차세대대회’가 11월 6~10일 서울과 평창에서 열렸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24개국에서 150여 명의 한인 차세대 리더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스무 살의 열정으로 세상을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서울과 평창을 오가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모국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기 위한 행사에 참여했다.

이새롬 국립호주은행 법률 고문, 김정 미국 시애틀을 보잉사 엔지니어, 입양인 출신의 임정태 덴마크 변호사, 탈북자인 김태환 영국 요크 웹서튼 보트 미디어 담당자, 임영광 미국 CBS 선임 프로듀서 등이다.

역대 참가자인 김창현 인도 AA 스튜디오 대표, 유향란 일본 도쿄대 교수 등도 참가해 멘토로 나서기도했다.

6일 오후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 이재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심의관 등이 참석했다.

이 심의관은 환영사에서 “동포 1세대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주류사회 진출이 용이해진 차세대 여러분은 더 넓은 무대에서 활약해야 한다”며 “거주국과 모국 간 가교 역할에 앞장서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참가자들의 응원 메시지 영상이 상영되고 대형 떡 케이크를 함께 커팅하는 순서가 마련됐다.

과학기술 전문서적 출판사인 엘스비어의 지영석 회장은 ‘행운이 함께하는 커리어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타인과의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지 회장은 “현지 사회와 모국을 연결하는 중추적인 역할에

차세대가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환영만찬에서는 유현덕 한국캘리그래피협회장의 ‘수묵 캘리그래피 퍼포먼스’, 차세대 리더들의 아이스 브레이킹 등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7일 토크콘서트, 세계시민포럼, 전문가 네트워킹을 통해 우리 동포들의 주류사회 진출 방안과 재외 동포사회 및 모국의 공동 발전에 관한 역할을 논의했다. 이어 저녁에는 ‘잇다’라는 주제로 참가자간 친목을 도모하는 교류의 밤 행사를 열었다. 8일에는 서대문형무소 견학 등을 통해 모국의 뼈아픈 역사 현장을 체험한 뒤 태극기 등을 흔들며 평화기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후에 일본대사관 앞으로 이동해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에도 참석했다.

이 총리, 참가자들에게 “세계관 넓혀라” 격려

이낙연 총리는 8일 오후 제20차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석자들을 서울 삼성동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는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차세대 대표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총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연설을 인용해 “한국이 짧은 시간에 참화를 딛고 눈부시게 성장했다고 한 것을 기적에 비유한 것은 대단한 칭찬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은 지난 70여 년 사이에 그런 놀라운 변화를 실현했다. 앞으로는 또 어떠한 변화를 할지 모른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차세대 대표들에게 “여러분의 조국이 이루었던 그런 기적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DNA(유전자)가 여러분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한분 한분께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길 바라고, 그러한 축복이 이미 어딘가에 준비되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혹시 내가 부러운 사람이 있다면 한 번 손들어보라. (부럽다면) 바보들”이라면서 “나는 여러분의 젊음이 부럽고, 여러분이 국제적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는 게 부럽다. 해외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다. 왜냐하면, 자기의 세계가 그만큼 넓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지에서 산을 보면 산속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산속에 들어가 보면 반드시 길이 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참을성만 있다면 정상까지 가게 돼 있다”며 차세대 대표들에게 지금 하는 일을 재미있게 즐기며 최선을 다하라고 조언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기원

참가자들은 9일 평창으로 이동해 한식·한복 등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평창동계올림픽 스키점프센터에서 대회의 성공



2



3



4

1. 24개국에서 한인 차세대리더 150명이 참가한 '2017 세계한인차세대대회'가 11월 6~10일 서울과 평창에서 열렸다.
2.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가자들은 4박5일간 모국에서 정체성을 함양하고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3.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가자들은 11월 8일 삼성동 총리 공관을 방문했다.
4.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현장을 방문한 대회 참가자들은 11월 9일 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오륜기 퍼포먼스를 열었다.

개최를 기원하는 오륜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오륜기에 각국 언어로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문구를 적었고 색색의 풍선을 하늘로 날려 보냈다.

이어 용평리조트로 이동해 대회 참가자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별 모임 개최 등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대회 참가자들은 “거주국 주류사회에서 활약하고 있지만 소수민족으로서 이중 정체성에 대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기에 쉽게 가까워졌고 동질감을 느꼈다”며 “대회기간 구축한 네트워크가 앞으로의 삶에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장]**

韓中정상, 사드 마침표 찍고 관계복원 공식화... “새 출발” 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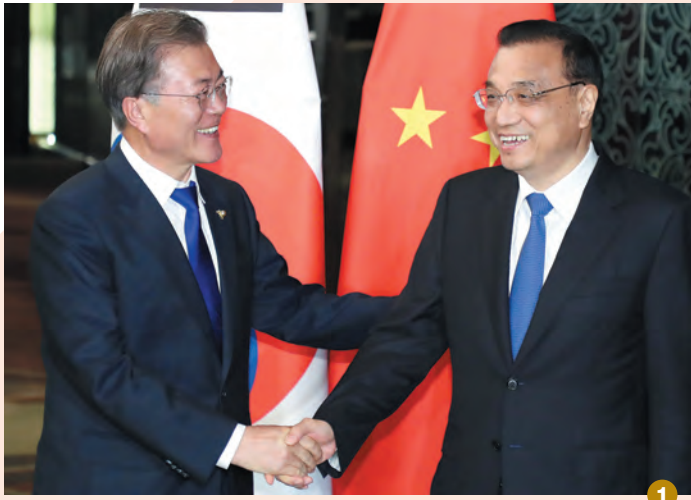
모든 분야 교류협력 정상궤도 회복 합의... 文대통령 12월 訪中 성사



APEC 정상회의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월 11일 오후 베트남 다낭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11월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정상회담은 한·중관계 복원을 정상 차원에서 공식화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10월 31일 양국 정부 간 합의에 따라 그동안 관계개선의 최대 장애가 돼온 사드 갈등에 분명한 마침표를 찍고 미래지향적 발전을 추진한다는 데 양국 정상 뜻이 모은 것이다.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부터 관계개선에 대한 양국 정상의 강한 의지가 묻어났다.

시 주석은 먼저 “문 대통령을 다시 만나 아주 기쁘다”며 “오늘 우리 회동은 앞으로 양국관계 발전과 한반도 문제에 있어 양측의 협력, 그리고 리더십의 발휘에 있어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한국 속담이 있다. 매경한고(梅經寒苦)라고 ‘봄을 알리는 매화는 겨울 추위를 이겨낸다’는 중국 사자성어도 있다”며 “한중관계가 일시적으로 어려웠지만, 한편으로는 서로의 소중함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 한중 간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



1

1.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3일 오후 '제31차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필리핀 마닐라 소피텔 호텔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회담장 앞에서 만나고 있다.
2.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9일 자카르타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기념촬영 후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3.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4일 필리핀 마닐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차 아세안+3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



3

게 양측이 함께 노력하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당초 예정보다 20분을 더해 모두 50분간 대화를 나눈 두 정상은 별도의 합의문을 내놓지 않았지만, 결과 브리핑 형태로 관계개선의 '핵심요소'에 대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회담의 최대 결과물은 문 대통령의 12월 베이징(北京) 방문에 양국 정상이 합의한 것이다. 이는 정상 간의 교류로 본격적인 관계개선의 물꼬를 트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방중 초청에 상응해 시 주석에게 내년 평창 올림픽에 맞춰 방한해달라고 요청했다. 시 주석은 "방한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만일 사정이 여의치 못해 못 가더라도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두 정상이 12월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한다는 데 합의한 것이다. 이는 10월 31일 '사드 합의'의 정신을 살려 새로운 관계정립을 시도하겠다는 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정상은 당초 사드 문제를 의제로 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사드 문제에 대한 양측의 기본적 입장을 확인한 뒤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정상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키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보다 의미있게 평가할 수 있는 성과물은 양국의 최대 공통현안인 북핵 해결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가일층 강화하기로 한 점이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현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핵 문제를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

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 7월 독일 함부르크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이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조속히 대화의 장(場)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펴나가겠다는 의미다.

이어 11월 13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하기 위해 필리핀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마닐라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양국 간 정치·경제·문화·관광·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이 각양각색의 꽃을 활짝 피우면서 양국 국민이 한중관계가 진정한 봄을 맞이했다는 것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하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文대통령 '신남방정책' 강력 추진... 사람·평화·상생번영 공동체가 핵심

APEC 정상회의에 앞서 11월 9일 인도네시아를 국민 방문한 문 대통령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한국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저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신(新)남방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내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한-인니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 등 이른바 '3P'를 핵심으로 하는 신남방정책 추진을 공식화했다. **창**

수교 25주년 한·중 관계... ‘사드’ 수습 단계로 기대감 큰 북경 한인사회 다문화가정 위한 ‘다누리센터’ 운영해 우수한인회로 선정



1



2

- 1. 중국 내 최대 '코리아타운'인 왕징(望京), 북경 북동부 차오양 구에 있는 한인 밀집지역이다.
- 2. 재외동포가 가장 많이 사는 나라는 중국으로 중국 국적자와 재외국민을 포함해 254만2천620명에 달한다. 사진은 만리장성.

재외동포는 전 세계 179개국에 거주하며 742만2천242명에 달한다. 외교부가 11월 29일 자로 홈페이지에 게재한 2017년 재외동포 현황에 따르면 재외동포가 가장 많이 사는 나라는 중국으로 254만2천620명에 달한다. 미국(249만2천252명)보다 조금 더 많다. 중국 동포 가운데는 시민권자(조선족 동포)가 219만8천624명 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재외국민은 34만3천996명이다. 외교부 통계에 잡힌 중국 거주 재외국민 숫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70만~80만 명과는 상당한 편차가 있다.

재중 동포사회의 구성 형태는 독특하다. 미국 동포사회의 경우 시민권자와 재외국민의 차이는 적지만 중국에서는 시민권자인 조선족과 재외국민 간의 관계는 국적에 의한 차이가 크다. 무엇보다 중국 정부가 양측이 섞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배경 탓인 듯 중국에는 한국인회와 조선족기업가

협회가 독립적으로 있다. 한국인회는 기업인 모임 성격의 한국인상회라는 명칭을 겸하거나 북경과 같이 별개로 존재하기도 한다. 북경의 한국인회와 조선족기업인협회는 교류는 하지 않으나 서로 행사가 있을 때 몇 명 정도를 초청해서 귀빈으로 소개하는 수준이다. 중국한국인회(회장 이숙순)는 산하에 지역별 연합회를 두고 있고 64개 도시에 한국인회가 있다. 북경한국인회(회장 김용완)는 중국한국인회 화북연합회 소속 지회이며 수도 북경의 한국인사회를 대표하는 만큼 상징성이 크다.

한국과 중국 양국이 올해 수교 25주년을 맞았다. 그간 양국 관계는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몇 가지 지표만 봐도 알 수 있다. 우선 교역 규모는 1992년 63억7천만 달러에서 2016년 2천114억 달러로 무려 33.1배가 증가했다. 2003년부터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제1 수출국이 됐고 한국 역시 중국의 4대 수출국으로 자리 잡았다. 인적교류

CHINA



3



4



5

3~4. 북경한국인회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누리센터'를 운영으로 올해 세계 한인회장대회에서 우수인회로 선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발대식과 축구교실.
5. 한중수교 25주년 기념식. 오른쪽이 김용완 북경한국인회 회장.

는 1992년 13만 명에서 2015년 1천59만 명으로 약 80배 늘어났다. 2015년 2월 기준 항공노선은 97개이고 운항 횟수는 주 878회(부정기편 제외)에 달한다. 또한, 한국 내 중국 유학생은 약 5만 명이고, 중국 내 한국 유학생은 6만3천여 명(2014년 기준)으로 양국 내 외국인 유학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 25년간 양적 질적으로 발전을 거듭해온 한·중 관계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로 촉발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로 수교 이래 최대 위기국면에 빠져들었다. 중

국 정부의 사드 보복조치는 중국 내 동포사회에 시름과 걱정을 안겨줬다. 특히 유통, 한류 문화, 한국 음식점 분야에 종사하는 한인 동포들의 피해와 고통이 컸다. 다행히 양국 정부는 10월 31일 긴장관계를 종식하고 전략적 관계 발전을 추진키로 합의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작년 7월 정부의 사드 배치 공식 발표 이후 본격화된 중국의 보복성 조치와 이를 둘러싼 양국 정부의 갈등은 일단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현지 동포사회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북경에 한인사회가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은 1992년 수교 전후이다. 1880년대 후반 기근 때 1차, 1910년 국권침탈 때 2차로 한인들이 연변을 비롯한 중국 동북 3성 지역으로 넘어갔고 이 가운데 일부는 북경, 상해에 산발적으로 거주했다. 기업인 유학생에 이어 관광서 주재원이 가게 됐고 동북 3성의 조선족도 대거 북경에 유입됐다. 2000년 무렵에는 북경시 북동부 외곽 왕징(望京) 지역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한인촌이 형성됐다. 왕징 거주 한국인과 조선족은 한때 12만 명, 1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북경한국인회는 송년의 밤, 신년 행사와 더불어 4월에 북경시 인민우호협회와 공동으로 식목행사를 계속해오고 있는데 올해로 13년째이다. 3년 전부터는 한중우호림에서 국제우호림 식목행사로 승격했다. 다문화가정이 양국 문화에 익숙해지고 소통을 늘릴 수 있도록 '다누리센터'를 개설해 운영하는 것도 북경한국인회의 성과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9월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우수인회로 선정됐다. 다누리센터는 중국인 배우자를 위한 '한국어 강좌', 다문화 자녀와 부모 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축구교실', 주부를 위한 '한식·홈패션 강좌', 전통문화를 배우는 '사물놀이반'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용완 회장은 "한국 교과과정을 배우는 북경한국학교 초등부 입학생의 25%가 다문화 학생이고 80만 재중 한국인 가운데 10%인 8만여 명이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사는 상황"이라며 "센터는 이중 언어·문화에 친숙한 가정을 늘리기 위한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중국시장 전망에 대해 "하드웨어 분야는 손대기 어렵지만, 소프트웨어 쪽은 농업 신기술, 의료, 양로 관리시스템 등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이 많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기회가 있는 규모의 땅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과 신의를 가지고 다방면의 관계를 만들고 대화하고 교류하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민간 중국전문가와 유학생을 잘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한]

“한계 규정 않고 늘 도전… 혁신적 예술가로 남고 싶다”

할리우드 배우, 성우 등 6가지 직업 가진 ‘팔방미인’ 재미동포 **에스더 채**



할리우드 영화·드라마 배우, 연출가, 성우, 극작가, 스피치 코치, 대학교수…

에스더 채(46·한국명 채경주)는 한 가지도 쉽지 않은 직업을 6가지나 가진 ‘팔방미인’ 재미동포이다. 채 씨는 11월 8일 다양한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 “서로 다른 일 같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신을 창의적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점에서 같다”며 “현실에 안주하기 싫어 도전해오다 보니 여러 타이틀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미시간대에서 연극이론 석사학위를 받았고, 예일대 드라마 스쿨에서 박사과정을 밟는 등 이론적 지식도 탄탄한 배우다. 할리우드에서 활약하는 한국계 1세대인 그는 “동양계와 여성에 대한 차별이 가장 심한 곳이 할리우드”라며 “한국인이 할리우드에 진출하려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고민하

고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현지인보다 더 영어표현력이 좋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 수없이 연습한 덕분에 성우로도 인정받게 됐고, 수많은 오디션에서 떨어지면서 자신을 알리는 스피치를 가다듬다 보니 남을 도울 수 있는 스피치 코치라는 직업도 갖게 됐다”고 경험을 털어놓았다.

채 씨는 직접 각본을 쓰고 연기를 한 1인 4역의 모노드라마인 ‘쏘 더 애로우 플라이스’(So The Arrow Flies)를 발표해 뉴욕의 주요 극장에서 공연했고, 한국과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연극축제에도 초청됐다. 올해부터 에머슨대 연기학과 교수로 임명돼 졸업반 학생들에게 영상연기를 가르치고 있으며 내년 2월 개봉예정인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블랙팬서’에 성우로 출연했다. 그는 “유학으로 미국에 건너온 동양계에 연기 경력도 부족했던 내가 할리우드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한계를 규정하지 않고 늘 도전해온 덕분”이라며 “타인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혁신적 예술가로 남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출판 미래는 콘텐츠가 좌우… 디지털 시대에도 책 필요”

과학·의료 분야 세계최대 규모 출판사 이끄는 **지영석 회장**

“디지털 시대라 출판이 사양산업이라는 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좋은 콘텐츠만 있으면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엘스비어는 매출이 더 늘고 있습니다.”

지영석(56) 엘스비어(Elsevier) 회장은 과학·의료 분야에서 세계최대의 출판사를 이끌고 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430년 전에 설립된 엘스비어는 연 매출 3조5천억 원에 24개국에 지사를 둔 글로벌출판사다. 그는 위기가 곧 기회라며 출판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콘텐츠의 디지털화

와 ‘양질의 콘텐츠’를 강조했다.

“엘스비어는 2천500여 종에 달하는 학술지와 전문서적 내용을 디지털화해서 ‘맞춤형’으로 독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종이로 출판된 자료들이 디지털화되면서 재가공을 통해 새로운 정보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저자가 책을 내면 독자가 읽었죠. 공급자와 수요자가 정해졌지만, 이제는 출판도 쌍방향이어야 합니다. 주문자 맞춤형이 새로운 출판의 흐름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소설이라면

결말을 독자의 기호에 맞춰 5~10가지로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핵심은 독자가 읽어야 할 필요를 느끼게 하는 좋은 콘텐츠를 생산하는 일입니다.” 지 회장은 “한국 출판계도 이를 위해서는 대형출판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출판사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며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 위상에 걸맞게 출판산업도 몸집을 키워 글로벌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청소년 시절 외교관인 부친을 따라 미국, 영국, 일본 등 6개 나라를 옮겨 다니며 공부했고, 고1 때 미국으로 건너와 프린스턴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아메리칸익스프레스

CEO 비서로 사회에 첫발을 디뎠으며 멘토인 미국 포브스 선정 부자 순위 50위안에 드는 출판부호 브론스 잉그람의 권유로 출판업에 뛰어 들었다. 성공의 비결에 대해 “돈·지위·명성보다는 사람을 쫓아 일해온 덕분”이라며 “직장을 선택할 때 세속적 기준보다 나를 이끌어줄 멘토가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천500개 한국기업에 컨설팅... “상술, 문화, 날씨 염두에 두고 장기계획 짜야” ‘13억 인도 시장 교두보’ 컨설팅 업체 ‘까마인디아’ 노영진 대표

“지난해부터 인도로 전 세계 기업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이어 차기 제조공장이자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기 때문입니다. 컨설팅은 한국기업이 인도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도록 돕는 일이라 사명감으로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노영진(50) 까마인디아(KAMAINDIA) 대표는 10월 31일 “인도 시장의 매력은 값싼 노동력과 13억 인구의 소비시장”이라고 밝혔다. 노 대표가 2000년 인도 뉴델리에서 창업한 까마인디아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인도컨설팅 회사로 추천하는 기업이다. 지금까지 무역·법인 컨설팅을 맡았던 한국기업 수가 4천500여 개에 이를 정도로 이 분야 실적 1위의 기업이다. 인도에 투자·합작·진출 시 시장 조사에서부터 각종 인허가 취득과 법률·세무 관련 대행까지 다양한 업무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자회사를 통해 한국 방송의 현지촬영 지원도 맡고 있다.

그는 인도의 잠재력에 대해 “매년 7%대의 경제 성장률을 자랑하며 비교적 일찍 민주주의를 도입했고 4억 명 정도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노 대표는 한국기업이

인도에 진출하기 위해서 사전이 해가 필요한 것으로 ‘상술·문화·날씨’ 등 3가지를 꼽았다.

“인도인들은 비즈니스에서 신뢰관계보다 가치를 중시합니다. 상대가 자신이 가진 제품이나 기술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에 따라서 갑자기 가격이 3배 이상 될 수 있는 곳입니다. 뭐든지 천천히 진행되고 공권력이 든든한 배경으로 작용하는 문화를 갖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한여름에는 40~5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가 일의 능률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곳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노 대표는 “준비 없이 선부르게 달려들면 2~3년을 버티기 힘들지만, 시장에 안착하면 독과점이 가능할 정도로 안정되게 사업을 펼칠 수 있다”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진출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유학생 줄어든다... 작년 26만 명, 2년 전보다 6% 줄어

美·中·캐나다·호주·日順... 미국행 줄고 중국행 증가 추세

해외에 유학하는 한국인 숫자가 갈수록 줄고 있다. 또 최고 선호 지역으로 꼽히던 미국 유학생 숫자는 감소하는 대신 중국으로 떠나는 유학생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가 발표한 '2017 재외동포 현황' 가운데 재외국민의 체류자격을 분류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해외에 머무는 우리나라 유학생은 모두 26만28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보다 1만6천550명(6.0%), 4년 전보다는 3만6천473명(12.3%) 줄어든 것이다. 외교부는 각국 재외공관의 보고를 취합해 2년마다 재외동포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외 유학생은 미국이 7만3천113명(28.1%)으로 가장 많고 중국은 6만2천56명(23.8%)으로 두 번째였다. 2년 전 각각 9만9천562명(36.0%)과 5만8천120명(21.0%), 4년 전에는 10만2천574명(34.6%)과 4만9천913명(16.8%)인 것에 비하면 격차가 많이 줄었다. 다음으로는 캐나다 2만5천396명, 호주 1만7천770명, 일본 1만5천438명, 영국 1만1천183명, 필리핀 9천903명, 독일 7천566명, 프랑스 6천655명, 뉴질랜드 4천211명, 말레이시아 3천809명, 태국 3천50명, 싱가포르 2천570명, 러시아 1천666명, 대만 1천131명, 베트남 1천117명, 스페인 1천88명, 네덜란드 1천84명, 인도 913명, 이탈리아 877명, 인도네시아 789명, 오스트리아 716명 순이었다.

아프리카 유학생은 남아공 590명을 포함해 816명에 불과했고 중동과 중남미 유학생은 각각 615명과 563명에 그쳤다. 유럽 유학생은 모두 3만7천172명이었다. 나라별로 보면 2년 전과 비교하면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러시아,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의 유학생 숫자가 줄어든 반면 중국을 비롯해 호주, 필리핀,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등은 늘었다. 특히 스페인 유학생은 2년 전 156명에서 6배나 급증했다.



올해 3월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7 해외 유학·이민 박람회'.

“미국 내 한인 유학생 5만8천663명... 11년 만에 가장 적어”

한편 미주 한인방송 라디오코리아는 11월 15일 미국 비영리 교육기관인 국제교육원(IEE) 발표를 인용해 “2017년 가을학기 등록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은 107만 8천22명이며 이 가운데 한인은 5만8천663명”이라고 보도했다. 한인 유학생은 전년 동기 6만1천7명보다 3.8% 줄었다. 6만 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06년(5만9천22명) 이후 11년 만이다.

하지만 한인 유학생은 중국 35만755명, 인도 18만6천267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은 대학은 뉴욕대(1만7천326명), 남가주대(1만4천327명), 컬럼비아대(1만4천96명), 보스턴 노스이스턴대(1만3천210명), 애리조나주립대(1만3천164명) 등의 순이다. 이 방송은 “한인 유학생의 감소는 트럼프 취임 후 불법체류 청년의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 (DACA) 폐지를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방글라데시 한인회 ‘로HING야족’ 돕기 3만 달러 상당 전달

방글라데시 한인회(회장 김항진)는 미얀마에서 탈출한 로HING야족 난민(사진)을 돕기 위해 3만 달러 상당의 성금과 물품을 전달했다고 11월 6일 밝혔다. 한인회는 9월 20일부터 11일간 성금과 생필품·의류·이불 등을 모았고, 11월 1일 유엔 산하 국제이주기구(IOM) 방글라데시지부에 성금 1만 달러와 이불 및 텐트용 천막 등 2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손영일 한인회 문화체육국장은 “투자자협의회·섬유회·상사협의회·선교사협의회·자영업협의회 등 한인단체와 많은 한인이 처참한 환경에 내몰리고 있는 로HING야족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동참했다”며 “특히 IOM 지부에 근무하는 채숙희 씨와 방글라데시 대사관의 지원으로 한인사회의



회교도인 로HING야족 난민이 11월 1일 미얀마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피신하고 있다.

성금이 전달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손 국장은 “방글라데시의 한인은 수도 다카를 중심으로 1천여 명밖에 거주하고 있지 않지만, 이번 모금 활동에서 큰 정성을 보여줬다”며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사룻 대시 IOM 지부 대표는 전달식에서 “한국인들의 따뜻하고 의미 있는 활동으로 평가받을 이번 구호 활동은 방글라데시 내 첫 민간단체 지원이라는 점에서 더 뜻이 있다”며 감사 표시를 했다. 현재 미얀마를 탈출해 방글라데시에 정착한 로HING야족 난민은 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HING야족은 불교국가인 미얀마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아왔다.

美 캘리포니아 주 의회, 재미동포 청소년 위한 ‘화랑의 날’ 제정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매년 10월 10일을 재미동포 청소년들을 위한 ‘화랑유스데이’(화랑의 날)로 제정했다. 주 상·하원 결의안 통과를 신라 시대 ‘화랑정신’을 바탕으로 한인 청소년들에게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봉사단체인 화랑청소년재단(회장 박윤숙)이 주도해 이뤄졌다.

박 회장은 11월 9일 “지난 3월 세바스찬 리들리-토마스 주 하원의원에게 기념일 제정 발의를 요청했고, 6월 6일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케빈 드 레온 주 상원의장에게도 요청해 결의안은 10월 12일 상원에서 의결됐다”며 “원래는 비밀에 부쳤다가 12월 2일 LA 한인타운에서 선포식을 열면서 공표할 계획



재미 한인 봉사단체 화랑청소년재단 총회.

이었지만 이번에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미국에서 소수민족 청소년들을 위해 주 의회가 기념일을 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연방 차원에서도 ‘화랑의 날’을 제정해 미국에서 자라나는 한인 2세대들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로비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캘리포니아 주 ‘화랑의 날’ 제정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 한인 청소년들의 활동을 기리는 날이 각국에서도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화랑정신’은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벼를 믿음으로 사귀고, 죽이는 일을 삼가며, 싸움에 물러서지 않는 정신을 말한다.

中 선양 민속촌서 조선족·한족 어우러진 ‘김장나눔 축제’

중국 선양시 인근의 신한민속촌(촌장 김관식)은 11월 4일 조선족과 한족이 함께 한 ‘김장나눔 축제’를 열었다. 한국계 회사인 상익그룹, 요녕성애심기금회, 동전희망운동본부의 후원으로 마련된 행사로, 5t 분량의 김치를 담가 조선족양로원과 독거노인, 한족 불우이웃 등에게 나눠줬다. 축제에는 김창남 주심양한국 총영사관 영사, 안성락 상익그룹 회장, 정대영·오성일·안성규 심양한인회 부회장, 김화선 선양시 조선족소학교 교장, 라오닝성애심기금회, 독도사랑 중국협회, 선양시조선족대학생연합회, 열방국제학교, 선양시 세종학당, 라오닝성사범대, 무순시조선족요양원, 조선족노인협회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가했다.



중국 선양시 인근의 신한민속촌에서는 11월 4일 ‘김장나눔 축제’가 열렸다.

김창남 영사는 “맛있는 음식에는 국경이 없다”며 “김장 전통문화를 전하고 어려운 이웃도 돕는 뜻깊은 행사”라고 축하했다. 소학교 학생들과 함께 참가한 김화선 교장은 “배추와 김치소가 버무려져서 맛난 김치가 되듯 나눔 봉사를 위해 조선족과 한족이 하나가 돼 무척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50여 명의 라오닝성사범대 한족 대학생들은 “직접

담가보니 김치가 왜 맛있는지를 알게 됐다”며 “한국을 더 가깝게 느끼게 됐다”고 즐거워했다. 2006년부터 1천500평에 한옥으로 꾸민 민속촌을 운영해 온 김관식 촌장은 “중국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도 체험하고 한중간 우호의 한마당이 되도록 나눔 축제를 자주 열겠다”고 말했다.

美 LA서 이색 ‘김치 홍보’... 와인안주·김치 에피타이저 소개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이색적인 ‘김치 홍보’ 행사가 열렸다.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는 한인 2세 가수과 배우 등 연예계 종사자, 유명 셰프와 미국 현직 판사까지 김치 애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벤트다. 11월 11일 행사 주최 측인 카인드 피플 파티에 따르면 LA 도심에서 11월 9일 ‘파워 오브 김치 셀레브레이션’ 행사가 열렸다. 김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레시피 등을 공유하고 노숙인 지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매운 반찬이란 선입견을 없애고자 와인 안주로 곁들이는 김치, 한식과 조화를 이룬 김치 에피타이저 등을 선보였다.



LA에서 열린 이색 김치 홍보 행사.

유명 셰프 아키라 백이 MSG 무첨가 카인드 피플 김치와 곁들일 한식 메뉴를 소개했으며, 할리우드 한인 배우 김종만과 카멜라 림, ‘스윗드림’으로 국내에서도 유명한 밴드 유리스믹스의 데이비드 스투어트, 가수 그레이스 발레리 등이 함께했다. 퍼블릭 에너미의 한인 멤버 새미 베가스과 고등법원 판사인 크레이그 미첼도 김치 홍보에 동참했다. 카인드 피플 파티의 모세 최 대표는 “한인 배우들과 영국 가수이자 김치 애호가인 스투어트가 참여해 ‘김치송’ 뮤직비디오를 현장에서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미첼 판사는 “김치를 접해보지 않은 미국인들은 김치가 얼마나 건강하고 좋은 음식인지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

**제1회 유럽 청소년 꿈 발표 제전,
 헤이그 이준 열사 기념관서 개최**

유럽에 거주하는 한인 2세 교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제1회 유럽 청소년 꿈 발표 제전'이 11월 4일과 5일 이틀간 네덜란드 헤이그의 이준열사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우크라이나 등 유럽 지역에 사는 18명의 한인 2세 청소년이 참가해 자신의 꿈을 소개하고 비전을 밝히며 경쟁을 벌였다. 대회는 유럽한글학교 협의회 주관으로 헤이그 이준열사기념관과 주네덜란드 한국대사관의 협찬으로 열렸다.



**베를린서 유럽의 한민족 청년세대 참여
 평화통일 콘퍼런스 열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유럽협의회는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유럽 청년 평화통일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콘퍼런스에서는 헬무트 콜 전 총리의 외교안보 보좌관을 지낸 호르스트 텔취크 전 서울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교 총장이 '한반도 통일과 유럽 청년들의 역할 및 자세'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서두현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장도 '북한 인권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콘퍼런스에는 유럽 거주 청년세대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탈리아 체류 · 생활의 길잡이”...
 밀라노총영사관, 안내서 발간**

주밀라노 총영사관은 '이탈리아 체류 및 생활 안내' 제하의 소책자를 발간해 총영사관 민원실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고 11월 16일 밝혔다. 지난 9월 이탈리아에 처음 도착한 교민들의 더 수월한 현지 정착을 돕기 위해 개최한 설명회(사진)의 내용을 수정·보완해 휴대하기 편리한 소책자 형태로 발간했다. 이 책자는 총영사관과 밀라노 한인회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해외입양인들,
 평창서 입양인 출신 한국 국가대표 응원 나선다**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회장 정애리·사진)는 입양인 출신으로 태극마크를 달고 평창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와 감독을 위한 응원단을 꾸리기로 했다고 11월 16일 밝혔다. 평창올림픽에서 한국 국가대표로 나서는 입양인 출신은 여자 아이스하키의 박윤정(26, 미국명 마리아 브랜트) 등 3명이다. 응원단은 미국, 캐나다 등 5개국 한인 입양인 30명과 봉사회 관계자 등 40명으로 구성해 2월 7일부터 8박 9일 일정으로 평창·강릉·정선의 경기장을 돌 계획이다.



**홍콩 한인 청년들,
 유학생 권익 돕는 국제청년센터 결성**

홍콩 거주 한국인 유학생과 동포 학생 등 30여명은 11월 21일 홍콩시립대에서 국제청년센터 발족식을 열고 내년 1월부터 홍콩으로 유학 온 외국 학생들의 권익보호와 교류·협력 활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비영리 봉사단체인 국제청년센터는 청년의 국제교류 증진과 나눔을 통한 세계 기여를 목적으로 2010년 미국 LA에서 처음 창립됐고 2014년 한국에 국제청년센터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유학생 권익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재외동포 학생 12개국 40명 공주대서 모국 연수 수료

일본, 아르헨티나, 우즈베키스탄 등 12개국에서 온 40명의 동포 학생을 대상으로 공주대 한민족교육문화원에서 실시한 재외동포 모국 연수가 11월 30일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민족교육문화원은 국립국제교육원의 위탁을 받아 학생들의 모국이해를 돕기 위해 국내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수료한 학생들은 4월부터 시작한 '국내 대학(원) 수학 준비과정' 10명과 9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모국어해 가을학기 과정'에 참여한 30명 등이다.



한국-인도 다리가 된 ‘반공포로’ 출신 한인1세대 현동화 씨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는데...”

10월 24일 인도 수도 뉴델리 한국대사관에서 이해광 주인도 대사대리로부터 국민훈장 석류장을 건네받은 현동화(85) 재인도한인회 고문은 훈장을 받은 소감을 묻자, 여러 생각이 떠오르는 듯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현 고문은 1932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 인민군 장교로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을 갖고 강원도 화천에서 국군에 귀순해 ‘반공포로’가 됐다. 휴전 협정 체결 후 한국이나 북한이 아닌 멕시코로 가기를 희망했다가 결국 인도에 남아 지금까지 60여년을 지냈다.

중립국행을 택한 계기가 최인훈의 소설 ‘광장’에서 묘사하듯 이념적 고려는 아니었다며 오히려 “멕시코에 가면 나중에 이웃한 미국으로 건너가 대학도 다니고 더 공부할 수 있겠다”는 현실적 동기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도에서 중립국으로 가기를 기다리던 88명의 반공포로 대부분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으로 떠난 후에도 애초 포로 수용 의사를 밝혔던 멕시코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현 고문은 지금은 고인이 된 반공포로 동료 3명과 함께 결국 인도에 정착하게 됐다. 당시 인도에는 한국 교민이 거의 없어 이들이 사실상 재인도 한인 1세대가 됐다.

현 고문 등 4명은 1958년 인도 정부에서 1만 루피(17만 3천800원)를 융자해줘 뉴델리에서 양계장 사업을 시작했다.



현동화 재인도한인회 고문이 10월 24일 인도 수도 뉴델리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은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양국 민간교류
앞장선 공로로 훈장 수여”

한국 누에 알을 수입해 인도 카슈미르 등에 보급하기도 하고 한국 건설업체에 중동 건설분이 붙었을 때는 인도 노동자들을 중동에 보내 일하도록 하기도 했다. 인도에 귀화하라는 권유도 있었지만 1962년 뉴델리에 한국 총영사관이 생기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1964년부터 2년간 총영사관 직원으로도 근무했다.

서울 올림픽 개최 결정에 나름의 역할을 했다고 회고했다. 1988년 올림픽 개최지를 결정할 1981년 9월 서독 바덴 바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를 앞두고 일본 나고야와 경합하던 서울의 가장 큰 약점은 분단 상태에서 비롯된 안보 위협이었다. 현 고문은 같은 골프클럽 회원으로 친분이 있던 아시위니 쿠마르 당시 인도 IOC위원이 올림픽 안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대사관과 협력해 그의 한국 방문을 주선했고, 그가 서울 방문 후 올림픽을 개최하기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올림픽 개최지 선정에 큰 난관을 제거했다고 그는 자부했다.

1984년부터 20년간 재인도한인회장을 지내며 ‘한국 기금’을 만들어 한국어 과정을 마친 인도 학생의 연수를 지원하는 등 양국 민간 교류와 인도 한인 사회의 기반을 다졌다. 거동이 불편해진 최근까지도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 주 아요디아에 있는 가야 허황후 기념 공원 개선사업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했다. 60여년 전 중립국행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느냐는 질문에 “열심히 살았고 그때마다 한국과 인도의 관계가 좋아졌기에 후회는 없다”고 답했다. [▶](#)

평창을 빛낼 스타, 재미동포 2세 ‘스노보드 천재’ 클로이 김

‘스노 프린세스(Snow Princess)’ 클로이 김(17)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전 종목을 통틀어서도 손꼽히는 ‘스타 플레이어’ 가운데 한 명이다. 한국인 부모를 둔 재미동포 클로이 김은 스키 스노보드 부문에서 어릴 때부터 ‘천재 소녀’라는 별칭을 달고 살았다. 2014년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에는 나이 제한에 걸려 출전하지 못했지만, 스키 관계자들은 ‘나가기만 했으면 금메달은 클로이 김 차지가 됐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부문의 절대 강자이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롱비치 태생으로 ‘김 선’이라는 한국 이름도 갖고 있다. 4살 때 스노보드를 타기 시작한 그는 6살 때 전미스노보드연합회가 주최하는 내셔널 챔피언십에서 3위에 오를 정도로 일찌감치 두각을 나타냈다. 2015년에는 15살 나이로 동계 엑스게임 사상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웠고 2016년에는 16세 이전 3연속 엑스게임 정상에 오른 최초의 선수가 됐다.

지난해 US 그랑프리에서 여자 선수 최초로 1천80도 회전을 연달아 성공하며 사상 첫 100점 만점을 받아 세계 스키계를 놀라게 했다. 미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틴에이지 30명’ 명단에 2015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타임은 11월 초 발표한 ‘2017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틴에이지 30명’에서 클로이 김에 대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지목했다. 동계 스포츠 선수로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세계랭킹 1위 클로이 김이 올해 2월 7일 서울 강남구 버튼 서울플래그십스토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는 유일하게 이 명단에 포함된 클로이 김을 두고 타임은 ‘미국 대표팀이지만 부모가 모두 한국에서 태어났고, 친척들도 한국에 살고 있다’고 소개했다. 클로이 김은 올해 2월 강원도 평창에서 올림픽 테스트 이벤트를 겸한 국제스키연맹(FIS) 스노보드 월드컵에 출전하기 위해 방한했다. 국내에서 열린 대회에 처음 출전한 클로이 김은 성적은 4위에 머물렀지만, 국내에 머무는 동안 많은 화제를 뿌렸다.

미국 국무부 스포츠 대사를 맡은 클로이 김은 한국 대학생들과 만남을 통해 세계를 무대로 경쟁하는 선수로서 겪는 어려움을 얘기하고 태릉선수촌을 방문하기도 했다. 당시 주한 미국대사관 주선으로 미국 기업 관계자들과 만찬을 가졌고 평창에서는 지역 내 청소년들과 함께 스노보드 클리닉 등을 진행했다. 2016년 노르웨이 릴레함메르에서 열린 동계 유스올림픽 개회식에 미국 선수단 기수를 맡을 정도로 미국 내에서도 동계 종목의 간판선수로 인정받고 있다. 또 지난해 상반기에는 일본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와 후원 계약을 맺는 등 한국과 미국을 뛰어넘는 글로벌한 인기를 입증해 보였다.

올해 2월 방한 당시 좋아하는 한국 음식으로 돼지 불고기, 된장찌개를 열거하

며 떡볶이도 즐겨 먹는다고 밝힌 클로이 김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한국 팬들에게 가장 친근하게 다가설 ‘글로벌 스타’ 임이 분명하다. **▶**

“
타임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틴에이지’
3년 연속 선정
”

프랑스 파리서 한국전쟁 참전 의의 되새기는 행사 잇따라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참전의 의의를 기리는 행사가 잇따라 마련됐다. 문화교류단체 '한국의 메아리'(대표 이미아)는 10월 13일 파리 시내 마들렌 대성당에서 개최한 한·불 친선콘서트에서 프랑스 한국전 참전용사협회 파트릭 보두앵 회장에게 한반도 모양의 크리스털 감사패를 전달했다.

감사패에는 '한국은 당신들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프랑스어 문구와 38선 위로 비둘기가 날아가는 모습을 담았다. 이 단체는 또한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프랑스군 287명의 이름을 새긴 명부를 제작해 참전용사협회에 전했다. 보두앵 회장은 "유엔군 소속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프랑스 군인들이 목숨을 바쳐 지킨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것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하루속히 평화통일이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보두앵 회장은 한국전 참전용사는 아니지만, 자신이 시장으로 재직하는 파리 근교 생망데시(市)의 전임 시장으로 1995년 별세한 정치인 로베르-앙드레 비비앙의 유지를 기려 한국전 참전용사 협회를 이끌고 있다. 나치의 프랑스 점령 시기 레지스탕스로 활동했던 비비앙은 한국전쟁에도 참전한 뒤, 프랑스로 돌아와 9선 의원까지 지내면서 한국전쟁을 기리는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비비앙 전 시장의 유지를 이어받은 보두앵 회장은 한국전 참전용사협회장으로서 꾸준히 한국을 방문해 6.25 당시 프랑스군이 싸웠던 지역을 찾아 기념비를 세우는 등 한·불



프랑스 '한국전쟁 참전용사협회' 파트릭 보두앵 회장이 감사패를 들여다보고 있다.

“

**한·불 친선콘서트 ·
'斷腸의 능선 전투'
추모행사 · 미술 전시회 등 열려**

”

문화교류에 앞장서고 있다.

한·불 친선콘서트를 10년째 주최하고 있는 이미아 대표는 "한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한·불 친선의 중요 모티브"라고 강조했다. 이날 콘서트에는 프랑스군 의장대 합창단도 참여했다. 한편, 보두앵 시장이 이끄는 참전용사협회는 10월 12일 주한프랑스대사관 무관부와 함께 파리 개선문 앞에서 '단장(斷腸)의 능선 전투' 기념식도 개최했다. 한국전 참전용사와 유족들이 참석해 헌화하고 전장에서 순국한 동료 병사들을 기린 뒤 보두앵 회장이 재직했던 생망데시청으로 자리를 옮겨 만찬도 함께 했다. 단장의 능선 전투는 한국전쟁에 3천 400여 명을 파병한 프랑스가 참전한 최대 격전 중 하나로 프랑스군 42명이 목숨을 잃었다.

프랑스 대대는 미군 2사단에 배속돼 1951년 9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30만 발에 달하는 대규모 포 사격과 항공 근접지원으로 북한군을 후방으로 격퇴했다. '단장의 능선'(Heart Break Ridge line)이라는 이름은 한국전쟁 당시 치열했던 전투로 다친 병사가 가슴이

찢어질 듯하다며 고통스러워하던 모습을 보고 AP 종군 기자가 붙인 이름이다. 프랑스 내 한국 미술인 협회인 소나무작가 협회도 10월 12일 한국전쟁 참전용사 행사에 맞춰 생망데시청에서 문민순, 김영숙, 윤혜성 작가가 참여하는 '영혼의 울림' 3인전을 26일까지 마련했다. **[창]**

김용래 연합뉴스 파리 특파원

평창 이색 스토리... 입양아 출신 언니는 한국, 동생은 미국 대표로

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서로 다른 국가의 유니폼을 입게 될 한 자매의 스토리에 미국 사회가 깊은 관심을 보였다.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수비수 마리사 브랜트(25·한국명 박윤정)와 11개월 어린 동생으로 미국 국가대표가 유력한 한나가 그 주인공이다. 미국 NBC 스포츠가 10월 마리사-한나 자매의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소개한 데 이어 11월 16일에는 미 스포츠 잡지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SI)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언니 마리사는 한국 출신 입양아다. 1992년 한국에서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미국 미네소타 주로 입양됐다. 이듬해 미국인 양부모로부터 동생 한나가 태어났다. 양부모는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것을 함께 시켰다. 자매는 춤, 피겨스케이팅, 체조에 이어 아이스하키까지 함께 하며 세상에서 둘도 없는 사이가 됐다. 한국 문화 캠프에도 함께 보냈지만 정작 마리사는 거부감을 느꼈다. 한나는 “언니는 한국인 입양아라는 사실을 떠오르게 하는 그곳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국과의 연결은 우연히 이뤄졌다. 마리사는 2015년 미네소타 출신의 한국 대표팀 코치 레베카 룩제거로부터 한국 대표팀에 지원해보라는 제의를 받았다. 북미 여자 아이스하키 2부리그에 속한 구스타부스 아돌프스대학에서 4년 내내 선수로 뛴 마리사의 재능을 룩제거 코치가 눈여겨본 것이다. 마리사는 고민 끝에 이를 수락했다. 그렇게 그해 7월, 그는 입양 뒤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고, 이후 모



한국과 미국 아이스하키팀 선수로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을 꿈꾸는 마리사(오른쪽)-한나 브랜트 자매. 어렸을 적 모습.

든 것이 바뀌었다. 그전까지 한국어는 전혀 몰랐고, 매운 음식을 싫어했던 그는 이제 휴식차 미네소타로 돌아올 때면 가족과 함께 불고기와 만두 등 한국 음식을 먹으러 다닌다. 동생 한나에게는 요즘 유행하는 K-팝을 들려줬다. 마리사는 지난 4월 강릉에서 열린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 세계선수권 디비전 2 그룹 A 대회에서 ‘박윤정’이라는 이름이 적힌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뛰었다. 한국이 5전 전승으로 우승한 뒤 시상식에서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연주될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이 한국인임을 알았다고 했다. 그는 “그때 생각했죠.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이것이 내가 찾아야 할 정체성이라고 말이죠”라고 말했다.

동생 한나 역시 꿈인 올림픽 출전을 향해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다. 최근 열린 4개국 컵 대회에서 미국 대표팀 공격수로 2골을 넣는 활약을 펼치며 최종 엔트리 발탁을 눈앞에 뒀다. 현재 세미프로팀에서 뛰는 한나는 아이스하키 명문인 미네소타대 2학년 시절, 소치 동계올림픽 대표팀 최종 엔트리에서 탈락하는 아픔을 겪었다. 마리사는 그때 동생이 집으로 돌아와 평평 울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했다. 이제 자매는 각각 다른 나

“
미국 언론, 아이스하키 선수
마리사-한나 브랜트 자매
스토리 주목
”

라 대표로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최고의 무대에 서는 꿈을 그리고 있다. 검은 머리의 언니 마리사는 자신을 버렸지만 날아준 나라 한국을, 동생인 한나는 미국을 대표하는 아이스하키 선수로 참가하는 꿈이다. [▶](#)

별자리를 따라간 이중섭


강원희 _ 미국 _ 2017 동포문학상 시부문 대상

소머리국밥집에 걸려있던 이중섭의 소 그림
 국밥 한 그릇 먹을 수 있었다면
 이중섭은 마흔에 푸른 세상을 등지지 않았으리
 올 해 이중섭의 나이 백 살
 이중섭은 죽어서도 허기져 나이를 먹는구나

망우리 공동묘지 이중섭의 묘
 이중섭의 묘에는 개미도 게 그림을 그리는지
 계딱지에 다닥다닥 붙은 개미들
 누군가 묘지 한 귀퉁이에 게를 묻어놓았구나

살아생전 서귀포에서 아이들과 끼니가 없어
 잡힐까봐 뒷걸음질 치는 게를 너무 많이 잡아
 미안하고 또 미안해 게를 그렸다는 이중섭
 그가 그린 '달과 까마귀' 둥근 달 밥상에
 뜨신 밥 한 사발에 밥도둑 간장게장 곁들여
 개밥바라기별 뜨기 전 저녁 한 상 차려주고 싶구나

지금쯤 이중섭의 묘지 안은 시끌벅적하겠다
 복사뼈에서 돌아난 꽃들로 '도원' 처럼 눈부시겠단
 은종이 그림 속에서 썰물처럼 빠져나온 게들은
 이중섭의 엄지발가락을 물고 세상 밖으로 나가자 보채고
 꽃비를 단 물고기들은 비린내를 풍기며 무덤 속을 헤엄쳐 다니겠단
 이중섭은 고구려 고분처럼 제 무덤 속에서도 벽화를 그리는지
 그가 그린 황소는 어디로 가고 별자리만 남았구나

누군가 '흰 소'를 타고 워낭소리 울리며 뚜벅뚜벅
 무덤 속을 걸어 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았다는데
 살아생전 소를 그리다가 소도둑으로 몰렸다면 이중섭
 기어이 이승의 소 한 마리 훔쳐 별자리를 따라 갔구나 



바른 말 고운 말

둘째, 셋째, 넷째

보통 숫자를 셀 때는 ‘한, 두, 세, 네’와 같이 숫자를 나타내는 우리 고유어 뒤에 수를 세는 단위를 써서 ‘한 명, 두 장, 세 병, 네 권’ 등과 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순서를 나타낼 때는 ‘~째’라는 표현을 써서 조금 달라집니다. ‘~째’라는 말은 수관형사나 기본수 아래에 붙어서 ‘첫째 아들이다’라든가 ‘둘째가라면 서럽다’와 같이 차례나 등급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밥을 세 그릇째 먹는다’처럼 수량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전에는 ‘두째, 세째, 네째’와 같이 받침이 없는 형태는 차례를 나타내고, ‘둘째, 셋째, 넷째’처럼 받침이 있는 형태는 ‘몇 개째’라는 뜻으로 수량을 나타낸다고 구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분이 실제 언어 현실에서는 복잡하기만 하고 인위적인 것이라고 판단해서 순서를 나타낼 때와 수량을 나타낼 때 모두 받침 있는 형태인 ‘둘째, 셋째, 넷째’로 통합해서 쓰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째 아들, 세째 아들’이 아니라 받침이 있는 형태인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라고 쓰고 말하는 것이 옳은 표현입니다.

빌미 / 구실

“다들 나온 것 같은데, 영준이가 안 보이네.” “오기 싫다고 하더니 회사 일을 빌미로 안 나온 모양이야.”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으면 뭔가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그 일에서 빠지려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을 빌미로’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빌미’라는 말은 원래 ‘재앙이나 병 등의 불행이 생기는 원인’, 즉 ‘화근(禍根)’의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그는 그 일이 빌미가 되어 몰락했다’라든가 ‘그는 복잡한 회사 일이 빌미가 되어 병을 얻고 말았다’와 같이 불행이 생기는 원인이라는 뜻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앞의 대화에서는 ‘회사 일을 빌미로 안 나왔다’는 말이 회사 일이 화근이 됐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안 나오고 싶어 했는데 회사 일을 구실로 삼아서 안 나왔다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빌미’라는 말 대신 ‘구실’ 또는 ‘핑계’로 고쳐 말해야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날말 맞추기 _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4			
25		26					27	
						28		

▶ 10월호 정답

축	조	종	사	마	라	톤
구	기	이	서	리		
마	배	낭	아	수	라	
동	전	자	동	비		
년	고	막	서	울		
배	신	장	군	사	장	유
발	음	복	수			유
수	악	수	제	우	유	
영	양	가	비	석	서	

▶ 오른쪽 방향 열쇠

2. 사람과 달은 유인원 중에서 가장 큰 동물. 영화 ‘킹콩’에 나오죠
5. 김치를 담그는 데 쓰는 채소
6. 임진왜란 때 일본을 물리친 수군 장수. 거북선을 만든 장군
7. 죽은 사람의 몸을 이르는 말
11. 집채 안에 바닥과 사이를 띄우고 칸 낼뿐지. 또는 그 널빤지를 깔아 놓은 곳
13.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 또는 그런 작품,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등이 있다.
14. 몸에 내린 신을 맞아서 무당이 되려고 신에게 비는 곳
15.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상대방과 통화할 수 있도록 만든 기계
18. 음식의 간을 맞추는 데 쓰는 짠맛이 나는 흑갈색 액체. 메주를 소금물에 담가 우려낸 뒤 그 국물을 떼내어 술에 붓고 달여서 만든다
20. 등장인물의 성격, 나이, 특징 등에 맞게 배우를 꾸밈. 또는 그런 차림새
22. 좋은 운수, 또는 행복한 운수
26. 빛의 반사를 이용해 물체의 모양을 비추어 보는 물건. 옛날에는 구리나 돌을 매끄럽게 갈아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보통 유리 뒤쪽에 아말감을 발라 만든다
27. 지은 지 오래돼 식은 밥
28. 물을 걷기 위하여 땅을 파서 지하수를 괴게 한 곳. 또는 그런 시설

▶ 아래쪽 방향 열쇠

1. 쌀이나 보리로 질게 지은 밥이나 떡가루 또는 되게 썬 죽에 메춧가루·고춧가루·소금을 넣어 섞어 만든 붉은 빛깔의 매운 장
2. 양치식을 고사릿과의 여러해살이풀. 높이는 1m 정도며 어린잎은 식용하고 뿌리줄기는 녹말을 만든다. 아기의 통통하고 어린 손을 ‘○○○’ 같은 손이라고 하죠.
3. 호랑이를 영어로 말하면 ‘타이거’ 이고 사자는 ‘○○○’ 이죠
4. 짚으로 만든 신
5. 물자를 여러 곳에 나누어 보내 줌
9. 포도과의 낙엽 덩굴나무. 왕머루와 비슷하나 앞 뒷면에 붉은색을 띤 갈색 털이 있으며, 흑자색 열매가 달린다
10. 숨기고 있는 사실을 강제로 알아내기 위해 육체적 고통을 주며 신문함
11. 말을 기르는 곳
12. 모르는 낱말을 찾으려면 이것이 있어야 한다
16. 꽃을 심어 가꾸는 그릇
17. 은행나무의 열매. 식용하거나 약으로 쓴다
19. 더운 장국에 만 밥
21. 시간이 꽤 걸리는 먼 거리
24.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천운과 기수가 크게 트어 이루어짐. ‘○○대통’이라는 말이 있죠
25. 날이 새면서 오전 반나절쯤까지의 기간. ○○, 점심, 저녁
27. 더운물의 반대말

재단 OKFriends 봉사단 안산 고려인마을서 ‘사랑의 김장 나눔’



재외동포재단 관계자와 재단 OKFriends 봉사단은 11월 11일 경기도 안산에서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벌였다.

재외동포재단은 11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체육관에서 재단 OKFriends 봉사단 70여 명과 함께 고려인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벌였다.

봉사단은 OK저축은행·안산시청 등과의 협업으로 김치를 담갔고, 안산시 고려인 마을에 김치와 생필품이 담긴 행복키트를 전달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장학생으로 연세대에 재학중인 강아나 씨는 “처음 김치를 담가보았는데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이라

서 힘든 줄 몰랐다”며 “이번에 배운 걸 활용해서 앞으로는 김치를 직접 해먹을 계획”이라고 뿌듯해했다.

2012년에 출범한 OKFriends 봉사단은 올해로 6기를 맞았고 2015년부터 매년 김장 나눔 활동에 나서고 있다.

한우성 재단 이사장은 “장학생들이 모국의 문화를 체험하면서 동포사회에도 기여하는 일이라서 매번 열심히 참여한다”며 “재외동포들이 모국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단 2017년 공모사업 논문·문학상·로고송 시상

재외동포재단이 올해 공모한 학위논문 최우수상(외교부장관상)에 최진옥(한국외대 박사과정) 씨가 선정됐다.

최 씨는 ‘칠레 한인의 글로벌 세미노스(Global Semi-North) 정체성’이라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거주국과 동포사회가 동반 성장하는 최근 흐름에 맞춰 주류사회에서 인정받는 소수민족 커뮤니티로 성장한 칠레 한인사회를 다각도로 조명했다.

재외동포문학상 대상은 소설 이권재(미국), 시 강원희(미국), 수필 백동흙(뉴질랜드) 씨에게 돌아갔다.

재단은 12월 6일 서울시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시상식을 열어 이들과 함께 논문 부문 7명과 문학상 부문 30명의

입상자를 발표했다. 시상식에는 국내 체류 중인 단편소설 우수상 수상자 권용주(캐나다), 김태영(뉴질랜드) 씨가 참석했다.

‘텍사스 카우보이’로 우수상을 받은 권 씨는 “한국의 여러 문학상이 응모자격을 한국 국적자로 제한해 안타깝다”며 “재외동포문학상처럼 국적을 불문하고 한국어로 문학작품을 쓰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소설가 구효서 씨는 “10여 년 동안 1천 편 이상의 응모작을 읽고 심사하면서 절실하게 느낀 것은



재외동포재단은 12월 6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7 재단 공모사업 시상식'을 열었다.

낮설고 물설은 외국에서 모국어의 끈을 놓지 않아 온 동포문
학인들의 한국어 사랑이었다”며 ”우리 것을 지켜온 노력에 경
의를 표하며 앞으로는 주변의 다문화와도 교류하고 나누는 모
습이 소설 소재로도 많이 등장하게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단 창립 20주년을 맞아 진행된 로고송 공모에서는 양진
영 씨의 ‘글로벌 코리아’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시상식에서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가수 윤희주 씨가 최우
수상작을 편곡해 재탄생한 재단 공식 로고송을 발표했다.
이 로고송은 KBS, YTN, CBS 라디오 광고 등을 통해 일반에
게도 공개되었다.

한우성 재단 이사장은 “재단은 내국민과 동포 간 공감대 형
성을 확대하기 위해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학술과 문
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포들의 수준 높은 작품이 접수되고
있어 무척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시상식에서는 2018년도 달력과 재단 창립 20주년 기념 우
표첩도 공개됐다. 달력의 이미지는 최아희(일본), 박미하일(러
시아), 전옥희(브라질), 유혜영(스페인), 최준(중국) 등 11개국
동포 화가들의 재능기부 작품으로 꾸며졌다.

이 자리에서 달력을 전달받은 한인 입양작가 제니카 조이
(미국)는 “전 세계에 배포되는 달력에 참여해 영광”이라며 “다
양한 작품을 비교해 보는 재미가 있어 작가로서 자극된다”고
기뻐했다.

한우성 이사장 재일동포사회 격려·현황 파악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재일동포
사회를 방문해 단체들을 격려하고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활동
을 지원했다.

한 이사장은 재일본대한국민단 중앙본부(단장 오공태) 초
청으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6일 저녁 도쿄
프린스파크타워에서 열린 ‘재일한국상공회의소 만찬회’와 7
일 오후 시나가와 프린스파크타워 호텔에서의 ‘제19회 재일
민단 중앙집행위원회’에 잇달아 참석했다.

6일 행사에는 재일동포 출신 백진훈 참의원(민진당)을 비롯
해, 다키키 미치오 중의원(공명당), 데츠키 요시오 중의원(민
진당)등 일본 현직 의원 세 명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 이
사장은 “모국의 눈부
신 경제성장의 배경
에는 재일동포의 헌
신적인 모국투자과
기여가 있었다는 것
을 잘 알고 있으며
큰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7일 저녁에는 민단
과 재일한국인연합회
등 재일 한인단체

150여명이 참석한 재일민단 주최 이수훈 주일대사 환영 리셉
션에도 참석해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방일 중에 한 이사장은 재일본대한국민단 중앙본부, 재일한국귀
금속협회와 신주쿠한인상인연합회 등 한인단체를 방문해 한
일 관계 개선 등에 앞장서는 활동 등을 격려하고 한인들의 상
업 중심지인 도쿄 신오쿠보 지역에서 한류 확산과 평창올림픽
홍보에도 힘을 보탤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12월 6일 도쿄 프
린스파크타워에서 열린 ‘재일한국상공회의소 만
찬회’에 참석해 동포단체를 격려했다. 사진 좌측
부터 이찬범 주일본대사관 총영사, 오공태 재일민
단 단장, 한우성 이사장, 김광일 재일한인상공회
의소 회장, 이정일 주일본대사관 경제공사.

재단 2018년 예산 613억, 올해 수준 유지

재외동포재단은 2018년 예산이 올해보다 2억8천600만원
줄어든 613억 1천600만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줄어든 예산은 2017년 재단 제주이전 관련 비용 14억7천
800만원을 감안하면 사실상 소폭 증액된 수준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사업비는 8억8천800만원 늘어난 554억3천200
만원으로 정해졌는데 사업비를 항목별로 보면 한글학교와 교
사를 육성하는 교육사업에 194억4천400만원, 동포단체 활성
화와 숙원사업 지원 그리고 동포사회 지도자 초청 등의 교류
지원사업에 187억4천만원이 책정됐다.

또 조사연구사업비는 8억원이고 차세대사업 예산은 62억9
천100만원, 한상네트워크 활성화와 세계한상대회에 소요되는
한상네트워크사업 예산은 31억7천100만원이다. 홍보문화사업
에는 45억8천600만원, 재외동포통합네트워크사업에는 24억
원이 쓰일 예정이다. **창**

영양과 식감이 그만인 청정 산나물 ‘정선 곤드레나물밥’

새롭게 건강식으로 탈바꿈한 구황식물... 은은한 향기가 일품



곤드레 식재료를 파는 가게들이 즐비한 정선아리랑시장(좌), 묵나물 상태의 곤드레.

정선군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정보(시티버스 투어)

정선5일장 → 정선아리랑극(5일장날) → 스카이워크·아라리촌(5일장날 외) → 소금강길&물운대·화암약수(또는 화암동굴 선택) → 정선역·민동산역 → 강원랜드(하이원리조트)

대중교통

버스

동서울버스터미널-정선 시외버스터미널 (약 3시간 30분 소요)

기차

정선아리랑열차: 청량리-아우라지

(약 4시간 10분 소요)

태백선: 청량리-민동산역

(약 3시간 10분 소요)

식당정보

싸리골식당 (033-562-4554)

정선골 황기보쌈 (033-563-8114)

백두대간 한가운데에 있는 강원도 정선 땅. 표고 700m 이상이 전체 면적의 60%가 넘는 전형적 산악 지형으로 평야를 찾기도 도무지 어렵다. 산간지역 주민들에게 주식은 감자, 옥수수, 메밀이었다. 곤드레를 비롯해 취나물, 고사리, 더덕 같은 산나물은 강과 개천에서 잡은 물고기와 함께 요긴한 부식이 됐다. 그중 대표 음식이 곤드레나물밥이다. 산언덕 곳곳에 자생하는 곤드레는 화전민들을 먹여 살려준 구황식물이었으나 시대 흐름 속에 어느덧 영양과 식감이 그만인 기호음식의 주재료로 재탄생했다.

고려영경귀라고도 하는 곤드레는 엉거시 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이다. 원줄기는 높이가 1~2m 정도로 자라는데 4월과 5월에 채취한다. 나물취와 모양이 비슷하지만, 잎이 둥그스레하고 표면에 윤기가 나는 점이 다르다. 곤드레는 잎이 가늘고 길며 가장자리에 가시가 돌아 있어 날로 먹을 수는 없다. 따라서 억센 잎과 줄기를 데쳐 말린 뒤 묵나물로 만들어두었다가 먹는 게 일반적이다. 보통의 산나물은 많이 먹을 경우 몸이 붓고 누렇게 들뜨기 쉬우나 곤드레는 식감이 부드러운 데다 아무리 먹어도 탈이 나지 않아 산모들이 미역국 대신 섭취하곤 했다. 이 곤드레로 만드는 곤드레나물밥은 식이 섬유와 비타민, 칼슘, 단백질이 풍부하고 성인병 예방 효과까지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곤드레밥의 관심과 인기는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곤드레나물밥의 재료는 쌀과 곤드레, 들기름, 소금 등으로 비교적 단순한 편이다. 묵나물 상태의 곤드레를 삶은 뒤 먹기 좋게 썰고 들기름과 소금을 넣어 무친다. 그리고 불린 쌀을 솥단지애 물과 함께 넣고 고슬고슬하게 밥을



1~2. 곤드레나물밥.
3. 곤드레나물, 숙주, 느타리버섯, 고사리, 애호박 등 곤드레비빔밥 재료.
4. 곤드레비빔밥.

짓는다. 센 불, 보통 불, 약한 불을 차례로 가하면 맛과 향이 뛰어나고 식감도 그만인 곤드레밥이 완성된다. 식당에서는 대개 건조된 곤드레 재료를 사용하나 식감은 냉동된 것과 별 차이가 없다고 한다. 밥을 지을 때 표고버섯을 썰어 넣으면 영양은 물론 맛이 훨씬 좋아진다. 다 된 밥은 그릇에 담은 뒤 양념장이나 고추장, 된장찌개 등을 버무려 입맛에 맞게 비벼 먹는다. 씹새래하면서도 부드러운 곤드레 고유의 향과 맛을 느끼고 싶다면 곤드레만 넣고 비벼서 먹어도 좋다. 나물밥과 함께 상에 오르는 반찬은 무채김치, 물김치, 콩나물, 고추장, 간장, 꿀뚜기젓갈이다. 여기에 배추된장국을 곁들이면 담백하면서도 구수한 맛을 즐길 수 있다. 곤드레밥은 한 그릇에 6천

~8천 원 수준이다.

곤드레밥은 파생음식을 낳으며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그 대표적 음식이 곤드레비빔밥이다. 곤드레비빔밥은 잡곡밥과 곤드레나물, 숙주, 느타리버섯, 고사리, 애호박, 들기름을 재료로 한다. 곤드레를 들기름에 볶고 갓 지은 밥에 갖가지 나물을 나란히 올려 간장양념장이나 약고추장을 넣어 비빔으로써 입맛을 최대한 살린다. 삶은 곤드레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들기름에 볶는 과정은 곤드레나물밥과 같다. 이어 채썰기한 애호박을 비롯해 고사리와 숙주, 느타리버섯 등의 재료를 그릇의 밥 위에 고루 돌려 담은 뒤 주인공격인 곤드레나물을 한 가운데에 얹고 들기름을 두른다. **참**

아우라지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에 있으며, 예부터 강과 산이 수려하고 평창군 대관령면에서 발견되어 흐르고 있는 구절 쪽의 송천과 삼척시 하장면에서 발원하여 흐르고 있는 임계 쪽의 골지천이 합류되어 "어우러진다" 하여 아우라지라 불리고 있다. 또한, 이곳은 남한강 1천리길 물길따라 목재를 운반하던 유명한 뗏목 시발지점으로 각지에서 모여든 뗏꾼들의 아라리 소리가 끊이지 않던 곳이다. 특히, 뗏목과 행상을 위하여 객지로 떠난 님을 애달르게 기다리는 마음과 장마로 인하여 강물을 사이에 두고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애절한 남녀의 한스러운 마음을 적어 읊은 것이 지금의 정선아리랑 가사로 널리 불리고 있다. 뗏사공이 줄을 당겨 움직이는 줄 배는 잠시 여유를 느끼며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최도시 | 평창, 정선, 강릉

2018년 2월 그 순간,
당신은 누구와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알파인 스키 Alpine Ski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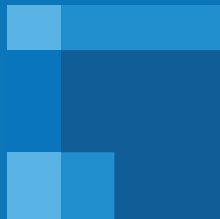
바이애슬론 Biathlon



크로스컨트리 스키 Cross-Country Skiing



프리스타일 스키 Freestyle Skiing



노르딕 복합 Nordic Combi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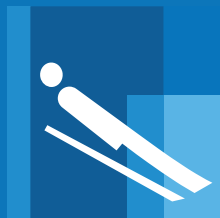
스키점프 Ski Jumping



스노보드 Snowboard



봅슬레이 Bobsleigh



루지 Luge



스켈레톤 Skeleton



컬링 Curling



피겨 스케이팅 Figure Skating



아이스 하키 Ice Hockey



쇼트트랙 Short Track Speed Skating



스피드 스케이팅 Speed Skating

입장권 선착순 판매 www.PyeongChang2018.com

※ 1인당 총 주문 한도는 50매이며, 1개 경기 주문한도는 인기 경기(4매)*, 그외 경기(8매)

*인기경기 : 개최식, 폐회식, 피겨스케이팅(전 경기), 쇼트트랙(전 경기), 스키점프(결승),
아이스하키(남자-4강부터 결승까지, 여자-결승), 스피드 스케이팅(10000 m 제외한 전 경기)



입장권 QR코드

원클릭 서비스(입장+교통+숙박) 안내 www.pyeongchang.kaltour.com

고객센터 : 1544-4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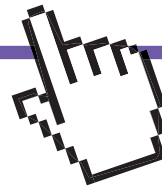
재외동포의 모든것,

KOREAN  NET 으로 통합니다.



재외동포 전문포털 코리안넷

www.korean.net



재외동포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한국 역사
한국 문화 콘텐츠



주요 재외동포
인물·단체 정보



재외동포단체 홈페이지
제작·지원 서비스



온라인 초청
지원사업 신청



재외동포단체
SNS 서비스



비즈니스 교류
및 정보 제공



한국어 한국문화
학습 콘텐츠

WWW.KOREAN.NET

WWW.KOREAN.NET

WWW.KOREAN.NET

WWW.KOREAN.NET

WWW.KOREAN.NET



“이민으로 해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 힘은 740만 재외동포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세계 74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